

남북 사전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과 과제

한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

1. 들어가는 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남과 북은 ‘여자 농구’, ‘조정’, ‘카누’ 종목에서 단일팀을 꾸렸다. 근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일팀 결성은 향후 남북 교류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단일팀을 꾸리고 나니 세 종목 모두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단체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과 북의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 용어들이 달라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남측의 ‘패스(pass)’, ‘덩크 슛(dunk shoot)’, ‘드러머(drummer)’는 북측에서 각각 ‘연락’, ‘꽂아넣기’, ‘북잡이’로 쓰고 있어 남북 경기 용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단일팀에서는 남북 경기 용어 대조집을 급히 만들어 함께 사용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고 한다.

남북의 우리 겨레는 서로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별다른 교류 없이 70여 년을 지냈다. 그 결과 남북 겨레는 사유 방식이나 생활 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 어휘의 차이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왜냐하면 어휘는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과 북은 같은 사물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말에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있고, 또한 표기법 및 표현 방식(사과나 감사 표현 등)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단일팀의 예에서처럼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남북 어휘 대조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특정 분야나 단체에서 상대측 어휘를 이해할 목적으로 남북 어휘 대조집을 만드는 작업은 간단하지만, 남북 어휘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 어휘 전반을 대조하여 통합하는 작업은 단번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체제 통일 이전에 남북 합의로 남북 어휘 통합 및 통일¹⁾을 위한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단계별 작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남과 북의 전문용어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및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대사전을 비교할 것인데,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전은 남측의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측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7)이다.²⁾

1) 이 글에서는 '통합'과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어휘 통합'은 "분단된 현 시점에서 남북 어휘를 대조하여 남북 공통 규범어(단수규범어 및 복수규범어)를 마련하는 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어휘 통일'은 "체제 통일 이후에 남북 공통 규범어를 토대로 하여 통일 규범어를 확정하는 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통합'과 '통일'의 대상은 전문 용어를 비롯한 규범어(표준어/문화어)에 한하며, 지역어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금은 체제 통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남북 어휘 통합' 작업에 집중하고, 남북 체제가 통일되면 '남북 어휘 통합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남북 어휘 통일' 작업을 하게 된다.

2) 이 글에서는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표대》로,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은 《조대》로 줄여 일컫기로 한다.

2. 남북 사전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

2.1. 남북 사전의 올림말 비교

《표대》와 《조대》는 각기 남과 북의 정부 주도로 편찬한 사전이고, 올림말(표제어) 또한 최대로 수록된 사전이어서 남북 어휘 차이의 구체적 현황을 밝히기에 적합하다. 이 두 사전에 수록된 올림말을 세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대》와 《조대》의 올림말 비교

사전	《표대》(1999)			《조대》(2006)		
① 올림말	439,816개(총 506,276개, 북한어 66,460개 제외 ³⁾)			352,943개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⁴⁾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⁵⁾
	217,035개	192,208개	30,573개	271,860개	43,079개	38,004개
② 한쪽 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	228,474개			138,472개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일반어	전문용어	기타
	75,635개	126,232개	26,607개	101,247개	25,726개	11,499개

《표대》의 총 올림말 수는 506,276개인데, 이 중 북한어 66,460개를 제외한, 439,816개가 남측에서 쓰이는 올림말이다. 439,816개의 올림말 가운데 전문용어는 192,208개로 전체 올림말 수 대비 43.7%에 이른다.

- 3) 《표대》에는 '북한어'가 올림말로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북한어'는 '남측 단어'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남북 올림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 《표대》의 전체 올림말에서 일반어와 전문용어를 제외한 수치로, '지역어', '은어', '고어' 등을 합한 수치이다.
- 5) 《조대》의 전체 올림말에서 일반어와 전문용어를 제외한 수치로, '지역어', '글체', '말체', '낱은말', '임시올림말', '옛말' 등을 합한 수치이다.

그리고 《표대》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228,474개로, 전체 올림말 수 (439,816개) 대비 51.9%에 이른다. 《표대》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조대》의 올림말을 비교했을 때 52% 정도의 남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대》의 총 올림말 수는 352,943개이다.⁶⁾ 이 가운데 전문용어는 43,079개로 전체 올림말 수 대비 12.2%에 이른다. 《표대》에 비해 전문용어 올림말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조대》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138,472개로, 전체 올림말 수 대비 39.2%에 이른다. 《조대》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표대》의 올림말을 비교했을 때, 39% 정도의 남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의 어휘 차이는 일반어에서보다 전문용어에서 더 심각하다. (1)의 '한쪽 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 가운데 남측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는 《표대》 전체 전문용어 대비 65.6%에 이른다. 그리고 《조대》 전체 전문용어 대비 59.7%가 북측에서만 쓰이는 전문용어이다. (1)의 통계에 따르면, 남북 겨레는 상대측 전문용어의 60%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2. 《표대》와 《조대》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

남북 두 사전의 전문용어 분류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대》에서는 전문용어를 53개 영역으로 분류한 데 비해, 《조대》에서는 전문용어를 47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남북 두 사전의 전문용어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북측에서는 남측과 달리 '속담'과 '성구'를 올림말에 포함하여 통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여기서는 남측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위하여, '속담'과 '성구'를 올림말 수에서 제외하였다.

(2) 《표대》의 전문용어 영역

<가톨릭>, <건설>, <경제>, <고유 명사>, <고적>, <공업>, <광업>, <교육>,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논리>, <농업>, <동물>,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불교>, <사회>, <생물>, <수공>, <수산>, <수학>, <식물>, <심리>, <약학>, <언론>, <언어>, <역사>, <연영>, <예술>, <운동 오락>, <음악>, <의학>, <인명>,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철학>, <출판>, <컴퓨터>, <통신>, <한의학>, <항공>, <해양>, <화학> (총 53개 영역)

(3) 《조대》의 전문용어 영역

<건설>, <경제>, <고고>, <금속>, <기계>, <기상>, <광업>, <농학>, <력사>, <논리>, <림학>, <무용>, <문예>, <문학>, <물리>, <미술>, <법률>, <생리>, <생물>, <방직>, <수리>, <수산>, <수학>, <심리>, <약학>, <언어>, <연극>, <영화>, <운수>, <음악>, <의학>, <자동차>, <잠학>, <전기>, <전자>, <정보>, <지리>, <지질>, <천문>, <철학>, <축산>, <출판>, <체신>, <체육>, <해양>, <화학>, <화학공업> (총 47개 영역)

(2)와 (3)을 비교해 보면, 《표대》의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와 같은 종교 관련 영역을 《조대》에서는 전문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대》에서는 ‘고유 명사’, ‘인명’, ‘지명’, ‘책명’과 관련된 단어를 올림말로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전문 영역이 없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의 단어에 한해 일반어로 수록하기도 하였다. 즉, 《표대》에서 ‘고유 명사’로 수록한 ‘게르만족’, ‘노벨상’ 등의 단어들과, ‘책명’으로 수록한 ‘훈민정음’, ‘간이벽온방’ 등의 단어들, ‘지명’으로 수록한 ‘백두산’, ‘금강산’ 등의 단어들을 《조대》에서는 일반어로 수록하였다. 또한 《표대》에서 ‘인명’으로 수록한 ‘공자’, ‘뉴턴(뉴턴)’과 같은 인명도 《조대》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임시올림말⁷⁾ 형식으로 수록하였다. 그리고 《표대》의 ‘민속’, ‘교육’, ‘군사’, ‘사회’, ‘언론’, ‘정치’, ‘항공’ 등의

영역도 《조대》에서는 전문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조대》에서는 이들 영역에 속한 《표대》의 어휘 가운데 일부를 일반어로 수록하고 있는데, 그 올림말 수가 《표대》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즉 《표대》에서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고유 명사’, ‘인명’, ‘지명’, ‘책명’, ‘민속’, ‘교육’, ‘군사’, ‘사회’, ‘언론’, ‘정치’, ‘항공’으로 분류하여 올림말로 수록한 전문용어는 총 47,674개인 데에 비해, 《조대》에 수록된 동일 전문용어 수는 총 10,026개에 불과하다. 또한 《조대》에서는 ‘느티나무’, ‘늑대’처럼 《표대》에서 ‘식물’이나 ‘동물’ 분야 전문용어로 분류한 어휘도 일반어로 분류하고 있어 《표대》의 분류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표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가 《조대》보다 많고, 《표대》에만 수록된 일반어가 《조대》보다 적다.

《표대》와 《조대》에 수록된 전문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표대》의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조대》의 전문용어를 비교하고, 또한 《조대》의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표대》의 전문용어를 비교해 보았다.

(4) 《표대》를 기준으로 한, 《표대》와 《조대》의 전문용어 비교

	전문 영역	《표대》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⁸⁾
1	가톨릭	1,106	297 (일반어: 294/그 외: 3) ⁹⁾	1,403	21.169
2	건설	2,743	1,836 (일반어: 1,214/건설: 536/그 외: 86)	4,579	40.096
3	경제	6,571	1,309 (일반어: 729/경제: 552/그 외: 28)	7,880	16.612

7) 《조대》에서는 ‘공자도 제 사는 곶에 먼저 비오라고 했다’, ‘뉴턴의 제법칙’ 등의 ‘속담’이나 ‘관용구’를 수록하기 위해 일부 ‘인명’을 올림말로 수록했다. 그렇지만 이 올림말에는 뜻풀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임시올림말’로 명명하였다.

	전문 영역	《표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⁸⁾
4	고유 명사	455	35 (일반어: 34/그 외: 1)	490	7.143
5	고적	1,726	394 (일반어: 282/고고: 99/그 외: 13)	2,120	18.585
6	공업	1,577	698 (일반어: 386/금속: 131/그 외: 181)	2,275	30.681
7	광업	1,321	955 (일반어: 616/광업: 119/그 외: 220)	2,276	41.960
8	교육	868	395 (일반어: 385/그 외: 10)	1,263	31.275
9	교통	764	201 (일반어: 138/운수: 58/그 외: 5)	965	20.829
10	군사	2,370	1,570 (일반어: 1,545/그 외: 25)	3,940	39.848
11	기계	961	410 (일반어: 183/기계: 187/그 외: 40)	1,371	29.905
12	기독교	744	371 (일반어: 370/그 외: 1)	1,115	33.274
13	논리	426	241 (일반어: 113/논리: 91/그 외: 37)	667	36.132
14	농업	1,346	1,264 (일반어: 1,027/농학: 116/그 외: 121)	2,610	48.429
15	동물	5,784	2,997 (일반어: 2,771/생물: 160/그 외: 66)	8,781	34.131
16	문학	2,808	755 (일반어: 553/문학: 138/그 외: 64)	3,563	21.190
17	물리	3,901	2,579 (일반어: 1,006/물리: 1,110/그 외: 463)	6,480	39.799
18	미술	686	500 (일반어: 313/미술: 171/그 외: 16)	1,186	42.159
19	민속	2,415	2,219 (일반어: 2,203/그 외: 16)	4,634	47.885
20	법률	6,611	2,345 (일반어: 1,815/법률: 447/그 외: 83)	8,956	26.184
21	불교	6,752	2,956 (일반어: 2,922/그 외: 34)	9,708	30.449
22	사회	1,536	467 (일반어: 416/그 외: 51)	2,003	23.315
23	생물	2,203	1,044 (일반어: 491/생물: 360/그 외: 193)	3,247	32.153

	전문 영역	《표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⁸⁾
24	수공	943	583 (일반어: 454/방직: 81/그 외: 48)	1,526	38.204
25	수산	258	138 (일반어: 74/수산: 59/그 외: 5)	396	34.848
26	수학	2,052	1,392 (일반어: 585/수학: 770/그 외: 37)	3,444	40.418
27	식물	4,998	5,030 (일반어: 4,634/생물: 357/그 외: 39)	10,028	50.160
28	심리	1,182	287 (일반어: 195/심리: 45/그 외: 47)	1,469	19.537
29	약학	726	437 (일반어: 192/약학: 201/그 외: 44)	1,163	37.575
30	언론	406	103 (일반어: 90/그 외: 13)	509	20.236
31	언어	2,112	1,111 (일반어: 583/언어: 495/그 외: 33)	3,223	34.471
32	역사	8,357	11,530 (일반어: 11,151/역사: 351/그 외: 28)	19,887	57.978
33	연영	875	494 (일반어: 273/영화: 134/그 외: 87)	1,369	36.085
34	예술	707	299 (일반어: 223/무용: 53/그 외: 23)	1,006	29.722
35	운동오락	2,905	1,112 (일반어: 845/체육: 256/그 외: 11)	4,017	27.682
36	음악	4,566	1,451 (일반어: 718/음악: 718/그 외: 15)	6,017	24.115
37	의학	5,289	3,234 (일반어: 1,626/의학: 1,107/그 외: 501)	8,523	37.944
38	인명	10,269	51 (일반어: 47/그 외: 4)	10,320	0.494
39	전기	1,216	714 (일반어: 199/전기: 302/그 외: 213)	1,930	36.995
40	정치	1,309	479 (일반어: 440/법률: 34/그 외: 5)	1,788	26.790
41	종교	622	293 (일반어: 282/그 외: 11)	915	32.022
42	지리	3,060	1,656 (일반어: 790/지리: 333/지질: 263/ 기상: 180/그 외: 90)	4,716	35.115

	전문 영역	《표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조대》 대응 표제어	《표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⁸⁾
43	지명	6,547	295 (일반어: 289/그 외: 6)	6,842	4.312
44	책명	1,700	325 (일반어: 321/그 외: 4)	2,025	16.049
45	천문	1,165	653 (일반어: 356/전문: 281/그 외: 16)	1,818	35.919
46	철학	1,218	572 (일반어: 355/철학: 198/그 외: 19)	1,790	31.955
47	출판	705	416 (일반어: 264/출판: 142/그 외: 10)	1,121	37.110
48	컴퓨터	879	252 (일반어: 69/정보: 118/전자: 45/ 그 외: 20)	1,131	22.281
49	통신	532	189 (일반어: 103/통신: 67/그 외: 19)	721	26.214
50	한의학	612	3,873 (일반어: 3,762/의학: 86/그 외: 25)	4,485	86.355
51	항공	549	170 (일반어: 153/그 외: 17)	719	23.644
52	해양	472	205 (일반어: 122/해양: 66/그 외: 17)	677	30.281
53	화학	4,327	2,794 (일반어: 836/화학: 1,650/그 외: 308)	7,121	39.236
	계	126,232	65,976	192,208 ¹⁰⁾	34.325

8) 여기서 백분율은 ‘《표대》 전문용어 총수’ 대비 ‘《조대》 대응 표제어’를 계산한 것이다.

9) ‘그 외’에는 ‘일반어’를 제외한, 다른 전문 분야 용어를 합산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10) 이운영(2002)에 제시된 《표대》의 총 전문용어 수는 225,779개이고, 이 가운데 북측 전문용어 34,345개를 제외한 191,434개의 올림말이 남측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참조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표대》 총 전문용어 수는 225,759개이고, 이 가운데 북측 전문용어 33,551개를 제외한 192,208개가 남측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이다. 두 자료의 통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통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운영(2002)에서는 ‘다의어’면서 『북한어』로 표시된 전문용어(예: 안전시거 ① 『교통』 안전하게... ② 『교통』 굽은 길이나... ③ 『북한어』 『간설』 안전하게 보이는 거리...)를 각기 개별 전문용어 수에 포함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다의어의 경우 하나의 올림말로 통계를 냈다.

《표대》에 수록된 전문용어 총수는 192,208개이다. 《조대》와 비교할 때 전문용어 영역이 6분야 더 많고, 수록된 어휘도 149,129개가 더 많다. 그리고 《표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는 126,232개로, 《조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에 비해 100,506개가 더 많다. 《표대》의 전문용어 총수(192,208) 대비 65.7%가 《표대》에만 있는 전문용어이다.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대》의 전문용어 중 49,837개는 《조대》에 일반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6,139개는 전문 영역이 다른 올림말로 수록되어 있다. (4)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일치하는 올림말이 34.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남북의 영역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말해 준다. 예를 들어 10개의 단어를 말하면 3.5개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관련 영역에서 《표대》의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영역 전문용어 총수는 13,141개인데, 《조대》에 수록된 동일 올림말은 3,917개로, 일치도가 29.8%에 그친다. 그리고 ‘역사, 사회, 교육’ 관련 영역에서 《표대》의 ‘고유 명사, 인명, 지명, 책명, 역사, 사회, 교육’ 영역 전문용어 총수는 42,830개인데, 《조대》에 수록된 동일 올림말은 13,098개로, 일치도가 30.5%에 그친다. 또한 ‘건설, 경제, 공업, 화학, 컴퓨터’ 관련 영역에서 《표대》의 전문용어 총수는 22,986개인데, 《조대》에 수록된 동일 올림말은 6,889개로, 일치도가 29.9%에 그치고 있다. 《조대》와 비교했을 때, 특히 ‘고유 명사(7.1%)’, ‘인명(0.5%)’, ‘지명(4.3%)’, ‘책명(16%)’, ‘경제(16.6%)’ 영역에서 올림말 일치도가 현저히 낮고, ‘한의학(86.3%)’, ‘역사(57.9%)’, ‘식물(50.1%)’, ‘농업(48.4%)’, ‘민속(47.8%)’ 영역에서 비교적 올림말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대》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표대》 전문용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 《조대》를 기준으로 한, 《조대》와 《표대》의 전문용어 비교

	전문 영역	《조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표대》 대응 올림말	《조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¹¹⁾
1	건설	1,543	687 (일반어: 79/건설: 534/그 외: 74)	2,230	30.807
2	경제	930	709 (일반어: 64/경제: 552/그 외: 93)	1,639	43.258
3	고고	501	146 (일반어: 17/고적: 99/그 외: 30)	647	22.566
4	광업	547	157 (일반어: 15/광업: 119/그 외: 23)	704	22.301
5	금속	917	257 (일반어: 31/공업: 131/그 외: 95)	1,174	21.891
6	기계	1,384	384 (일반어: 46/기계: 187/그 외: 151)	1,768	21.719
7	기상	235	208 (일반어: 12/지리: 180/그 외: 16)	443	46.953
8	농학	743	165 (일반어: 25/농업: 116/그 외: 24)	908	18.172
9	역사	298	409 (일반어: 26/역사: 350/그 외: 33)	707	57.850
10	논리	32	104 (일반어: 6/논리: 91/그 외: 7)	136	76.471
11	림학	322	54 (일반어: 21/농업: 20/그 외: 13)	376	14.362
12	무용	133	74 (일반어: 13/예술: 53/그 외: 8)	207	35.749
13	문예	113	91 (일반어: 30/문학: 26/그 외: 35)	204	44.608
14	문학	74	171 (일반어: 21/문학: 138/그 외: 12)	245	69.796
15	물리	1,294	1,352 (일반어: 33/물리: 1,107/그 외: 212)	2,646	51.096
16	미술	358	289 (일반어: 57/미술: 171/그 외: 61)	647	44.668
17	방직	541	134 (일반어: 34/수공: 80/그 외: 20)	675	19.852
18	법률	298	529 (일반어: 18/법률: 447/그 외: 64)	827	63.966
19	생리	451	512 (일반어: 16/의학: 386/그 외: 110)	963	53.167

	전문 영역	《조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표대》 대응 올림말	《조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¹¹⁾
20	생물	1,411	1,044 (일반어: 40/생물: 360/식물: 356/ 동물: 160/그 외: 128)	2,455	42.525
21	수리	429	53 (일반어: 17/건설: 24/그 외: 12)	482	10.996
22	수산	441	91 (일반어: 23/수산: 59/그 외: 9)	532	17.105
23	수학	533	872 (일반어: 29/수학: 771/그 외: 72)	1,405	62.064
24	심리	38	60 (일반어: 6/심리: 45/그 외: 9)	98	61.224
25	약학	503	309 (일반어: 13/약학: 201/그 외: 95)	812	38.054
26	언어	853	608 (일반어: 60/언어: 495/그 외: 53)	1,461	41.615
27	연극	43	53 (일반어: 8/연영: 40/그 외: 5)	96	55.208
28	영화	141	147 (일반어: 5/연영: 134/그 외: 8)	288	51.042
29	운수	660	165 (일반어: 66/교통: 58/그 외: 41)	825	20.000
30	음악	636	790 (일반어: 27/음악: 705/그 외: 58)	1,426	55.400
31	의학	1,731	1,398 (일반어: 72/의학: 1,106/그 외: 220)	3,129	44.679
32	자동화	219	14 (일반어: 1/컴퓨터: 3/그 외: 10)	233	6.009
33	잠학	162	64 (일반어: 7/농업: 44/그 외: 13)	226	28.319
34	전기	647	440 (일반어: 22/전기: 302/그 외: 116)	1,087	40.478
35	전자	518	233 (일반어: 7/전기: 85/물리: 75/그 외: 66)	751	31.025
36	정보	634	199 (일반어: 23/컴퓨터: 118/그 외: 58)	833	23.890
37	지리	470	397 (일반어: 32/지리: 333/그 외: 32)	867	45.790
38	지질	666	485 (일반어: 15/지리: 263/광업: 166/ 그 외: 41)	1,151	42.137

	전문 영역	《조대》 에만 있는 전문용어	《표대》 대응 올림말	《조대》 전문용어 총수	백분율 (%) ¹¹⁾
39	천문	226	329 (일반어: 12/천문: 282/그 외: 35)	555	59,279
40	철학	95	292 (일반어: 21/철학: 198/그 외: 73)	387	75,452
41	체신	451	151 (일반어: 20/통신: 66/그 외: 65)	602	25,083
42	체육	665	325 (일반어: 45/운동오락: 255/그 외: 25)	990	32,828
43	축산	501	82 (일반어: 22/농업: 32/그 외: 28)	583	14,065
44	출판	248	159 (일반어: 13/출판: 142/그 외: 4)	407	39,066
45	해양	400	152 (일반어: 36/해양: 66/그 외: 50)	552	27,536
46	화학	1,500	1,919 (일반어: 39/화학: 1,644/그 외: 236)	3,419	56,128
47	화학공업	191	90 (일반어: 4/화학: 59/그 외: 27)	281	32,028
	계	25,726	17,353	43,079	40,282

《조대》에 수록된 전문용어 총수는 43,079개이다. 《표대》와 비교할 때 《조대》는 전문용어 분류 영역이 6개 분야가 적고, 수록된 어휘도 149,129개 더 적다. 《조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는 25,726개이다. 《표대》에만 수록된 전문용어에 비해 100,506개가 적다.

《조대》의 전문용어 중 17,353개가 《표대》의 올림말과 일치하며 40.28%의 일치도를 보인다. 《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일치도가 6%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조대》에 수록된 전문용어 수가 《표대》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1) 여기서 백분율은 '《조대》 전문용어 총수' 대비 '《표대》 대응 올림말'을 계산한 것이다.

《표대》와 비교했을 때 특히 ‘자동화(6%)’, ‘수리(水利, 10.9%)’, ‘축산(14%)’, ‘림학(14.3%)’, ‘수산(17.1%)’, ‘농학(18.1%)’ 영역에서 올림말 일치도가 현저히 낮았고, ‘논리(76.4%)’, ‘철학(75.4%)’, ‘문학(69.7%)’, ‘수학(62%)’, ‘천문(59.2%)’, ‘력사(57.8%)’ 영역에서 올림말 일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남북 전문용어 통일을 위한 과제

분단 이후 남측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휘 변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한 적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분단 이후 여러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48년 이후부터 ‘한자말정리사업’과 ‘한자사용폐지사업¹²⁾’을 벌였고, 아울러 일제 강점기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어휘정화사업¹³⁾’도 벌였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어휘정리사업¹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북측에서 이러한 언어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했던 ‘일본어’와 ‘어려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많이 순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어휘를 변화시켜 남북의 어휘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12) 한자말을 모두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9~85쪽)에 따르면, “한자말과 외래어라고 하여 무턱대고 다 정리하는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휘정리원칙을 철저히 세웠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 예로, ‘지하투쟁’을 ‘땅속투쟁’으로, ‘중앙공업’을 ‘가운데공업’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되는데, 분단 이후 생성된 북측 단어(《조선말대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를 검토해 보면 전체(138,472개) 대비 39%가 한자어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어려운 한자어를 정리한 것이지 모든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3)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0~76쪽)에 따르면, 어휘정화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한자 어휘와 표현 및 불필요한 외래어를 대담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일반 및 학술용어 통일안(초안)》이 간행되었는데, 22개 분과 용어 중에서 6,000여 개를 정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4)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7쪽)에 따르면, “단어체계를…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문의 어휘를 다듬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어휘체계 전반에 걸쳐 동시에 혁명적으로 어휘정리사업을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여, ‘어휘정리사업’이 ‘어휘정화사업’과는 달리 어휘 체계 전반에 걸친 사업임을 표명하고 있다.

북측에서 위의 여러 언어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결과 특히 북측 전문용어에 변화가 많았다. 게다가 70여 년 동안 남북 분야별 전문가 사이에 교류가 단절되면서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는 점차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일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 이후 남측에서는 40여 년 동안 북한어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고, 남북 언어 비교 연구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을 위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¹⁵⁾ 그리고 전문용어의 경우도 남측 내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논의들이 있었고[고석주 외(2007), 강현화 외(2009), 박창원(2009) 등], 남북 전문용어 구축 및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다[신중진 외(2016), 이찬규 외(2014) 등]. 또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비교 및 통합에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권재일(2006), 김문오 외(2007), 김선철 외(2008), 신중진 외(2017) 등].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물들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북측과 협의되지 않은, 남측 단독의 관점만 반영된 것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연구물들을 토대로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을 위해 남북의 겨레가 함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남북 전문용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현재의 남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문용어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전문용어 통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 각 측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정비된 분야별 전문용어를 남북 전문가

15)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 관련 연구물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차재은(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언어 통합 및 통일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언어 통일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들이 함께 비교·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그 결과물을 사전이나 자료집으로 편찬하여 남북 겨레가 널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또는 자료집)'을 편찬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함께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을 편찬하면 남북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밝히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은 남북이 함께 편찬한 사전이므로 남북의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분단된 상황이지만 남북의 겨레가 같은 사전을 이용한다면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전문용어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체제가 통일되면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 전문용어를 최종적으로 통일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과거의 남북 교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통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3.1. 남북 전문용어 통합 계획 및 지침 작성

우선 남북이 함께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통합 지침은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보다 언어학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남북 전문용어 통합 시 전문용어 전체의 체계나 어휘별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합의하는 것보다 소수의 남북 언어학자들이 합의할 때 시간과 인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 용어가 다를 경우 그중 하나로 단일화하거나 또는 제3의 용어를 제안하기 위한 언어학적인 기준도 마련

해야 하므로, 전문용어 통합 지침은 남북 언어학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우선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만나서 전체적인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따라 남북의 분야별 전문용어 대조 작업을 한 후에,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만나서 합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남과 북은 전문용어의 개념과 분류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한 남북 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측에서는 식물 용어나 동물 용어, 그리고 군사 용어 등을 대체로 일반어로 수록하고 있어 남측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측 대사전의 경우 전문 분야를 53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비해 북측 대사전의 경우 47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두 사전의 분류를 토대로 전문 영역을 통일하되, 전문 영역의 수를 현재의 남북 분류보다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문 영역은 현재보다 더 세분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전문 영역 통일 작업을 할 때 세분된 것을 합치는 작업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3.2.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조사 및 표준화 작업

전문용어 통합 계획이 수립되고 통합 지침이 작성되면 남북 각기 분야별 전문용어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전문 분야의 용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여건이 갖추어진 분야부터 먼저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건상 분야별 전문용어 전수 조사 작업이 어려운 분야는 우선 남북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기초 학술 용어 조사 작업부터 시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북측은 정부 기관에서만 전문용어 사전 작업과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므로 남측에 비해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이 드물고, 또한 2000년도 이전에 편찬된 사전이 대부분이어서 최신 전문용어가 제대로 수록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측의 최신 전문용어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용어 전수 조사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측은 정부에서 전문용어와 관련된 통제를 거의 하지 않았고, 또한 민간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안 된 분야가 대부분이다.¹⁶⁾ 따라서 남측의 경우 북측과의 전문용어 통합 작업 이전에 남측 내에서의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¹⁷⁾

3.3. 남북 전문용어 대조 작업

남북 각기 분야별 전문용어 조사 및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함께 분야별 전문용어 대조 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 남북 각기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선책으로 남이나 북의 정부 기관에서 편찬한 사전(또는 자료집)을 기초 자료로 선정하되, 가급적 해당 분야 전문용어를 최대한 많이 수록한 사전을 선정하여 대조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이다.¹⁸⁾

16) 예를 들어 태권도 전문 분야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일반 태권도 도장 등)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일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단체별로 각기 쓰이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현재(2018년) 남측의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용어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7) 남측은 동일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기관이나 단체별로 전문용어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문용어의 기능(일지시성(—指示性), 일의성(—意性))을 고려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정책적으로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8) 그런데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북측 사전이나 자료집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남측 전문용어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만, 이에 걸맞은 북측 전문용어 사전이나 자료집을 확보하지 못해 남북 용어 대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조 작업을 할 때 남북이 공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나비, 오징어...)과 용어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개살구/산살구, 한글/조선글자...)을 엄밀하게 파악해서 남북 용어를 대조해 두어야 한다.

3.4. 대조 작업 결과물에 대한 남북 영역별 전문가 공동 검수

분야별 전문용어 대조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 대한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수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용어가 현재 남과 북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인지, 대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남북 언어학자들이 마련한 ‘전문용어 통합 지침’과 ‘개별 용어 단일안(남북의 용어가 다른 것을 하나로 단일화하거나 제3의 용어로 대체한 것)’에 대한 남북 전문가들의 검수 작업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5.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풀이(뜻풀이·용례·삽화 제시 등) 작업

남북 전문가 공동 검수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남북 사전편찬가들이 함께 개별 전문용어에 대한 풀이 작업을 해야 한다. 풀이 작업에서는 개별 전문용어에 대한 간략한 뜻풀이와 용례를 제공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삽화나 사진 등을 제시한다. 현재 남북 전문용어는 표기 형태가 같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경우가 있고, 또한 표기 형태가 다른데도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전문용어의 특징이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용어는 연어나 숙어 구성으로도 많이 쓰이므로, 해당 용어가 포함된 연어나 숙어 용례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삽화는 남북 어느 한쪽에만 있는 전문용어이거나 글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므로 최대한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6. 전문용어 풀이 결과물에 대한 남북 분야별 전문가 공동 검수

남북 개별 전문용어에 대한 풀이 작업이 완료되면,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 작업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검수하도록 한다. 해당 용어의 대조 작업과 풀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7.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또는 자료집) 편찬 및 보급

남북 분야별 전문가의 최종 검수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분야별 사전(또는 자료집)으로 출판한다. 이후 분야별로 출판된 사전을 종합하여 남북 겨레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형식의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k)나 웹 사전 형식으로 출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용어 가운데 특히 학술 용어는 남북의 일반인들도 널리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책보다는 전자사전이나 웹 사전 형식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3.8. 남북 전문용어 통일

남북 체제 통일 이후에, 남북의 학자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편찬한 사전(또는 자료집)을 토대로 하여 남북 전문용어를 통일한다.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1)에서 (8)까지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과거의 남북 교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남북 언어학자들이 우선적으로 만나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거시적인 작업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가 통합되면,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겨레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콤팩트디스크나 웹 사전 형식으로 일반에게 제공하여 남북 전문용어 차이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후 남북 체제가 통일되면 전문용어 통합 결과물들을 토대로 전문용어를 통일하면 될 것이다.

4. 맺음말

통일된 조국의 모습은 지금의 남측이나 북측과 많은 면에서 다를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남북의 겨레가 혼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언어이다. 그런데 남북에서 각기 편찬된 대사전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대조했을 때, 현재 북측에서는 남녘 말의 52%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남측에서는 북녘 말의 39%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어휘는 일반어에 비해 전문용어의 차이가 더 심각하다. 남과 북에서 각기 편찬한 대사전의 올림말을 비교했을 때 전문용어는 약 66% 차이가 난다. 전문용어에는 학술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술 용어는 교육과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용어이다. 만약 남북 어휘 통일을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남북 체제가 통일된다면, 전문용어는 남북 겨레의 소통과 화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전문용어 차이는 70여 년의 세월 동안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남측은 외래 전문용어에 대해 적극적인 순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반면 북측은 적극적으로 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단번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분단된 현 상황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남북의 겨레가 상대측 전문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북의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용어 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측에서는 북측 사전을 참고할 수 없고, 북측에서는 남측 사전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전이 되려면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편찬한 사전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1) 남북 전문용어 통합 계획 및 지침 작성, (2)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조사 및 표준화 작업, (3) 남북 전문용어 대조 작업, (4) 대조 작업 결과물에 대한 남북 영역별 전문가 공동 검수, (5) 남북 분야별 전문용어 풀이 작업, (6) 전문용어 풀이 결과물에 대한 남북 분야별 전문가 공동 검수, (7)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 사전(또는 자료집) 편찬 및 보급, (8) 남북 전문용어 통일’이 그것이다. (1)에서 (8)까지의 모든 단계에 남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남북 언어학자들이 만나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거시적인 작업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가 통합되면, 분야별 사전을 편찬하고, 이후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겨레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콤팩트디스크나 웹 사전 형식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전 편찬에 초점을 두었는데, 만약 남북 공동으로 이러한 사전을 편찬한다면, 이 사전은 분단 상황에서 상대측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고, 또한 체제 통일 이후의 전문용어 통일에도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술 퍼런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선각자들은 ‘조선의 독립’을 의심치 않으면서 문맹 퇴치와 우리말을 제대로 적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표기법[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우리 단어가 살아갈 집[《조선어사전》(1938), 《큰

사전》(1929~1957) 등'을 묵묵히 마련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광복 직후 큰 혼란 없이 교과서를 편찬하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일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에 3년의 시간(1930~1933)이 필요했고, 《큰 사전》 편찬에 28년의 시간(1929~1957)이 필요했던 것처럼 언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현화 외(2009),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7), 《전문 용어 연구》,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문오 외(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 외(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리기원(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리호경(2005), 《조선문화어건설리론》, 사회과학출판사.
- 박창원(2009), 《전문용어 정비 지침》, 국립국어원.
-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이찬규 외(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마춤법통일안》.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32~52쪽.
- 차재은(2009),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남북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27~52쪽.
-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 《2013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119~143쪽.
- 한용운(2015),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25~44쪽.

홍윤표 외(1996), 《컴퓨터 처리 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홍중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